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29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신안 옥도

LIFESTYLE
RESOURCES
PEOPLE
TRAVEL
SPECIAL
NEWS & ISSUE

CONTENTS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 04 섬 이름유래와 마을신앙
다이아몬드 제도의 중심
으뜸 섬낙지, 옥도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 06 1월부터 12월까지, 옥도 바다와 밭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08 마지막 맨손낙지잡이 장인, 송정찬 주민
팔방미인(八方美人) 송주현 이장
섬 살림꾼 송승학 신안군청 옥도출장소장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 10 옥도 투어 가이드(여객선 운항 정보)
- 12 옥도 역사문화
- 14 옥도를 기억하기 위한 현재의 기록

SPECIAL 섬, 경험을 공유해요.

- 16 내가 꿈꾸는 옥도
장상기 (주)지역다운레이블 대표

NEWS&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Photo Story 사진에 담긴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섬에서 만난 식물과 꽃
문전옥답(門前沃畝). 섬을 먹여 살리다

섬 단어사전



갯벌낙지

#신안갯벌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 #옥도갯벌 #맨손어법 #국가중요어업유산

신안군은 전국에서 많은 갯벌낙지가 생산되는 지역이다. 풀, 모래, 혼합갯벌 등 섬 지역마다 서로 다른 갯벌 지형이 분포한다. 2021년에는 #신안갯벌을 비롯한 한국의 갯벌(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보성·순천)이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옥도갯벌에서 나는 낙지는 서남해안 지역에서도 식감과 맛이 뛰어나기로 정평 나 있다. 갯벌에 분포하는 생물 다양성과 지질 다양성 등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큰 가치가 있다.

갯벌낙지는 잡는 어법 또한 다양한데, 참게를 미끼로 활용하여 외줄낙시 형태로 낙지를 잡는 '주낙어법'과 원형 통발에 미끼를 넣는 방식의 함정어법인 '통발어법', 이밖에 간조대에 갯벌을 걸어 낙지를 잡는 #맨손어법이 있다. 어법 다양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어업 문화 전승성 등에 관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8년 전남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LIFE STYLE

섬 이름유래와 마을신앙



옥도는 신안군 하의면에 속한 작은섬이에요. 지리적으로 섬의 형태가 왕(王)자를 그리고 본섬 인근 갯벌에 자리한 무인도로 꾸자리 섬(·)이 있어 이를 합하면 옥(玉)자 되는데요. 이렇게 '옥도(玉島)'라는 섬 지명이 생겨났어요. 옥도는 맑고 깨끗한 지하수가 나기로 유명한 섬이기도 한데, 이를 섬 주민들은 '옥로수(玉露水)'라 부르며 식수(食水)로 오랫동안 활용해왔어요. 이처럼 '옥'과 관련된 지명이나 용어가 주민들에게서 다양하게 활용된 사례를 보니 옥도가 귀한 보물처럼 사랑받아 왔음을 느낄 수 있어요.

옥도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당제를 지내왔어요. 약 60여 년 전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지만, 당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섬에 남아있는 제의 공간이나 주민들에 의해 구전되는 지명 등에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당제를 지냈던 짓제산 아래에 당숲과 당집 터에 남은 주춧돌, 지신독, 우물 등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옥도 당제에 관련된 신앙적 영험성은 주민 사이에서 구전된 이야기를 통해 살필 수 있어요. 과거 옥도에 큰 불이 세 번 났는데, 신기하게도 당제를 지냈던 공간은 불에 타지 않았다고 해요. 앞으로 '가고 싶은 섬' 사업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안녕을 위한 당제와 같은 축제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다이아몬드 제도의 중심

근대 시기 옥도는 팔구포(八口浦)의 한 가운데에 놓인 섬이라는 점에서 섬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있던 일본에게 군사·전략적으로 주목받은 역사가 있어요. 그 시작은 1894년~1895년 사이 발발한 청·일전쟁으로, 일본 해군은 옥도를 전쟁 준비를 위한 근거지로 삼았고, 그 후 발생한 러·일전쟁 시기에도 러시아 발틱함대에 맞서 옥도를 강제 점령하여 활용했어요. 이처럼 계속해서 옥도가 많은 관심을 받은 데에는 앞서 언급된바와 같이 팔구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였습니다.

여기서 '팔구포'는 옥도 주변에 자리하는 크고 작은 섬 사이에 난 수로(水路)와 해역을 일컫는 것으로, 신안군 도초도, 수지도, 사지도, 안좌도, 옥도, 장병도, 문병도 등이 있어요. 과거 옥도가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았다면, 오늘날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이아몬드 제도의 핵심 공간으로서 옥도'입니다. 옥도 주변에 자리한 자은도와 암태·팔금·안좌, 장산·하의·신의, 비금·도초도 등 대표적인 유인도로의 왕래와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점에서 앞으로 생산적인 의미와 가치가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으뜸 섬낙지, 옥도

옥도 갯벌낙지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섬 수산물로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국내 서·남해안 일대에 넓게 분포하는 '한국의 갯벌'이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옥도 갯벌낙지가 좋은 상품성을 지닌 데에는 바다 생물에게 유익한 게르마늄이나 미네랄 외에도 유익한 미생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라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옥도에서는 섬 주민들이 직접 갯벌을 걸어나다니면서 손으로 낙지를 잡는 갯벌낙지 맨손어업이 활발히 이뤄져 왔답니다.

갯벌낙지 맨손어법 종류

햇불낙지잡이	밤에 물이 빠져 갯벌이 드러나면 햇불을 비추고 다니며 낙지를 잡는 어법
손·팔낙지잡이	낙지 구멍에 팔을 넣어 낙지를 잡는 어법
가래낙지잡이	낙지가래(낙지삽)를 활용하여 갯벌을 파서 낙지를 잡는 어법
빠져나간낙지잡이	개를 다라 이동하는 낙지를 추적하여 잡는 어법
물은낙지잡이	낙지 숨구멍에 갯벌을 얹어두었다가 낙지를 잡는 어법
흘린낙지잡이	미리 잡은 낙지를 미끼로 삼아 갯벌 속 낙지를 유인하여 잡는 어법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옥도 바다와 밭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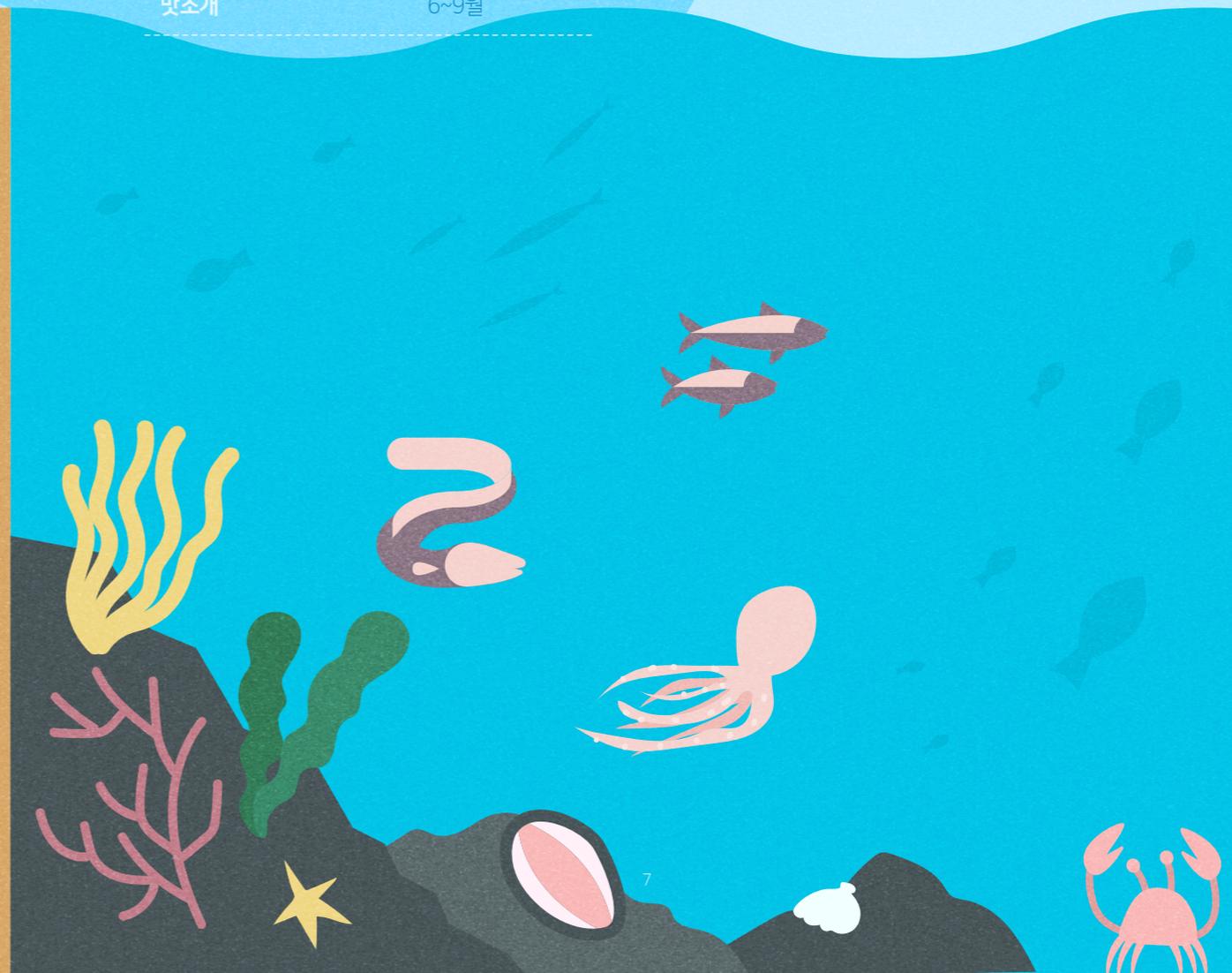


밭

양파	4~6월
보리	6월
마늘	6월
참깨	8~9월
쌀	9~10월
고추	9~10월
콩	9~10월
고구마	11월

바다

낙지	1~6월, 9~12월
김	1~3월, 9~12월
굴	1~3월, 11~12월
송어	1~4월, 11~12월
전복	3~5월
장어	2~12월
게	9~12월
맛조개	6~9월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PEOPLE



마지막 맨손낙지잡이 장인,
송정찬 주민

어찌 사셨습니까?

옥도에서 나고 자라 외지에 있다가 2000년대에 귀향한 이후 약 20여 년간 맨손낙지잡이를 해왔다. 옥도에서 맨손으로 낙지를 잡는 어민으로는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다.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갯벌자원이 많아서 마을 어른 대부분이 낙지잡이에 참여했다. 맨손낙지잡이는 어민이 보유한 바다갯벌 지식이나 어법 기술이 다양한 특성이 있다. 나는 갯벌에 팔을 쭉서 넣는 '팔낙지잡이'를 계속해왔다.

옥도에서 갯벌낙지가 굉장히 유명하던데 자랑 한 마디!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갯벌이 무척 단단해서 걷기에 더 없이 좋았다. 많이 잡으면 한 물때에 100마리 정도는 거뜰히 잡았다. 예전부터 옥도 낙지는 그 맛과 품질이 좋기로 소문났다. 그래서 흑산도에서 주낙으로 낙지를 잡는 어민들이나 섬을 순회하며 낙지를 수집하는 상인들이 많이 사러 왔다. 옥도에서 잡힌 낙지를 팔기 위해 육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부인회에 소속된 여성들이 나서서 목포로 향하곤 했다. 목포 앞선창에 있는 수산업체가 주요 거래처였다.

옥도 갯벌이나 섬에 관한 추억 이야기가 있다면?

과거 옥도분교에 학생들이 있을 당시에는 아이들이 뭇도 모르고 어른들 꿈무늬를 따라 기도¹⁾까지 낙지를 잡으러 가기도 했다. 옥도에서 보면 저기 앞에 섬이 신의면 기도 행정구역상 옥도는 하의면이고, 기도는 신의면이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섬 사이에 갯벌이 길게 이어져 왕래할 수 있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언젠가 객선이 옥도나 기도 한곳에만 기항하곤 했었다. 그래서 옥도와 기도 주민들은 갯벌로 난 길을 활용해서 객선이 닿는 섬을 번갈아가며 오가곤 했다. 그렇게 보면 기도와 옥도에 배가 각각 정박하던 시기야말로 두 섬 주민들이 서로 왕래나 교류를 했던 시간이 제법 길었고 활발했다. 지금은 갯벌이 무른데다가 조류 영향으로 갯벌 사이에 물길이나 생겨나 건너기 어렵다.

신안군 옥도에서 가고 싶은 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옥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어떤 사업이든지 착착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지금은 명맥이 끊겨버렸지만, 과거 당숲에서 신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주민 서로가 한 해 건강과 안녕, 행복을 기원하며 화합을 도모했던 당산제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부디 사업이 활성화되어 섬 공동체가 복원되고 새로운 주민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1) 기도(箕島)는 신안군 신의면 북서쪽에 속한 작은섬.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PEOPLE

팔방미인(八方美人)
송주현 이장



**옥도가 교육에 관한 관심이
컸던 곳으로 아는데 어떤 섬이었나요?**

여기 옥도에서 나고 자랐는데, 목포로 나가서 학교를 다니며 성장했다. 지난 2010년 섬으로 귀향해서 지금껏 살고 있다. 섬 교육에 관해 돌이켜보면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 목포로 유학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다수 옥도 주민들은 섬이나 옥지나 들이는 교육비가 비슷하니 하의도에 친척이 있더라도 가능한 목포로 보냈다. 더구나 목포에는 학원이나 도서관과 같은 학습시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옥도는 옛 어른 세대부터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섬이었다. 일례로 옥도 분교가 생기기 전에는 주민 개인이 사비로 창고를 개조한 서당을 꾸려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또 종친회에서 장학재단을 만들어 학생들을 돕기도 했다. 시간이 꽤 흘러 장학 적립금도 꽤 쌓였는지 최근에는 목포시와 신안군에 각각 장학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말씀 듣고 보니 이장님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듯해요. 평소 자주 다니는
운동 코스가 있으신가요?**

옥도에 귀향하고 난 직후 운동과 산책을 열심히 다녔다. 그래서 들녘이나 해안선을 중심으로 즐겨 찾는 코스가 생겼다. 내가 걷기 운동을 시작한 초기에 주민들 사이에서 일할 힘으로 운동 다닌다는 말이 있었다. 예전만 하더라도 움직일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 해내면서 먹고 살아야 했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최근 가고 싶은 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고 있는 '작약공원' 코스 일부도 예전에는 넝쿨이 많아 접근이 어려웠다. 그런데 산책을 다니기 시작하니 까 사라진 길이 생겼다. 이젠 곧잘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는 주민들을 쉽게 만난다.

**가고 싶은 섬 사업에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을텐데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신지요.**

가고 싶은 섬 사업에서 주민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선진지 견학이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배우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섬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이다 보니 중일 듣고 배우는 일정만으로 채워 넣으면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배울 거리 중간에 놀거리를 같이 해줘야 좋다. 놀거리에도 배울 점이 분명히 있으니 말이다.

최근 선진지 견학지로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참여한 주민들의 생각과 의식이 많이 바뀐 느낌이었다. 소화하는 일정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옥도에서도 이런 걸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았다. 섬 주민 사회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 가운데 견학 일정에서 난타 공연 관람이 놀거리라면 놀거리인데, 주민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완전히 히트였다. 과거 어른 세대부터 농악 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같은 마음이 들었던걸까?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가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옥도에서는 맨손낙지잡이가 유명하던데 주낙이나
통발로 낙지를 잡는 어민들은 없었나요?**

요즘에는 어민 혼자서 엔진 달린 어선에 좋은 장비를 활용해서 주낙 방식으로 손쉽게 낙지를 잡는다. 하지만 예전에는 주낙이라는 개념이 지금과 달랐다. 최소한 어부 두, 세 명이 배에 올랐는데, 뱃머리에 불 붙인 장작을 꽂아둔 채 한 명은 노를 저었고, 다른 한 명은 손으로 직접 주낙을 끌어올려 낙지를 잡았다. 낮에는 농사일을 열심히 하다가 해 지는 밤이 찾아오면 밤잠 줄여가면서 했으니 얼마나 고단했을까? 농사와 낙지잡이를 병행하기가 힘든 사람들은 햇불낙지잡이로 대신하기도 했는데, 이 어법은 간조대에 갯벌이 드러나는 밤 무렵 햇불을 들고 다니며 낙지를 잡는 어법이다. 맨손낙지잡이처럼 어부 스스로 특별한 기술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서 햇불낙지잡이는 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했다. 지금보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한 번씩 낙지를 잡으면 몇 접씩 잡았다.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PEOPLE

섬 살림꾼

송승학 신안군청 옥도출장소장



옥도에서 근무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2021년 10월쯤에 옥도에 왔으니 2년째다. 여기 온 이후로 민원 업무와 함께 가고 싶은 섬 업무를 보고 있다. 행정에 관련된 업무 대부분은 하의면사무소에서 관장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점도 있으니 출장소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많은 편이다. 소소하게라도 볼 수 있는 업무도 직원이 있어야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말이다.

가고 싶은 섬 사업에 대한 주민분들 반응은?

가고 싶은 섬 사업에 관해 옥도 주민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다. 나중에 일어겠지만, 수익 창출과 같은 점에 관심이 많은 듯하다. 당장은 섬마을이나 해안선 곳곳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나 해양 폐기물이 환경 미화 작업으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살기 좋다고 하신다. 출장소 뒤편으로 작약 심은 꽃밭은 예전만 하더라도 침낭쿨에 가시덤불이 가득했다.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유해식물들이 많이 자라서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런 점에서 경관이 좋아지고 길도 생겨나 모두들 환영하는 분위기다.



옥도에 여러 마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여기 작약 정원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큰 차량도 활발히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면 좋겠다. 여객선이 닿는 놀자리마을에서 큰마을로 나 있는 기존 도로는 폭이 좁아서 화물을 부리는 중형 트럭이 드나들기 어렵다. 그래서 기껏 배에 짐을 싣고 와도 선착장에서 하적했다가 다시 용달 트럭으로 옮겨 싣고 마을로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다시 말해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두, 세 번씩 반복해야 하는 셈이다. 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육지와 마찬가지로 섬 역시 길이 좋아졌으면 싶은 바람이 크다.

두 번째는 옥도가 바람이 무척 센 곳이다. 이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섬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날은 꼭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이었다더라. 최근에도 농기구를 쓰다가 발등을 다친 주민이 있었는데, 타고 나갈 배가 없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보통 배를 선창에 다 올려둔다. 선박 안전을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환자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신속히 이송해야 하니 급히 배를 내려서 안좌도로 이송했다. 옥도가 팔구포로 유명한 섬이다. 배가 어디서든 오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섬이다. 섬 주변 바다에서도 조업을 하다가 돌풍 만나면 피신해 올 수 있으니 튼튼하고 안전한 선착장과 피항 시설을 짓는 게 필요하다.

옥도에서 지내며 특별히 생각나는 풍경이나 좋아하는 장소 있으신지요?

여기 옥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풍경은 이른 아침에 섬 북쪽에 있는 갈머리 선착장에서 일출 보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섬에 해가 깃드는 풍경도 기억에 남는다. 출장소가 있는 큰마을과 거리상 꽤 먼 곳이지만 말이다. 마을이나 주민들에게 별 일은 없는지 살피기도 하고, 걷기 운동으로도 생각하면서 다녀온다. 아울러 옥도 어민들의 경우 갈머리항을 중심으로 어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서 불편 사항을 접수하는 점에 관해서도 찾곤 한다. 업무로 정말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말이다.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TRAVEL

옥도 섬 여행 안내

옥도에는 현재 숙박, 식사, 가게가 없으니 섬에 들어가기 전에 식사와 물을 챙겨서 가세요.

목포 연안여객선터미널 → 안좌(북호)·장산(북강)·하의(옥도·웅곡) 방면

항 차	기항지	들어가는 편		나오는 편		운항선박	비고
		출 발	도 착	출 발	도 착		
1	목포	05:50	-	-	10:10	남신안농협 (철부선)	하의 방면
	안좌(북호)	-	-	09:15	09:10		
	장산(북강)	07:05	06:55	08:50	08:45		
	하의(옥도)	07:30	07:25	-	-		
	하의(장병)	07:40	07:35	-	-		
	하의(웅곡)	-	07:50	08:00	-		
2	목포	13:30	-	-	18:15		
	안좌(북호)	14:35	14:25	17:20	17:15		
	장산(북강)	14:55	14:50	17:00	16:55		
	하의(옥도)	15:30	15:25	-	-		
	하의(장병)	15:45	15:40	-	-		
	하의(웅곡)	-	16:00	16:10	-		

목포 연안여객선터미널 :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항연안여객선터미널

장산 북강여객선터미널 :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로 685-1

문의 : 남신안농협 244-0522

운임 :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 하의면 옥도 편도 기준, 대인 12,350원)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TRAVEL

옥도 역사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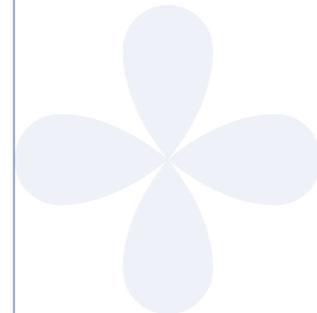
01

일본 해군기지 유적

옥도는 일본 군함이 기동할 수 있는 해로(海路)가 분포하는 '팔구포'의 정점에 위치해 있고 식수 사정이 좋은 생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근대시기부터 섬 곳곳에 일본 해군기지와 관계된 시설들을 설치했는데요. 이에 관한 유적이나 흔적을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어요. 먼저 일본해군대장 관사가 지어졌던 터, 일본 해군들이 사용한 목욕탕, 기상관측소, 우물, 망마산 포대 진지 등이 있어요. 과거 1894~5년 청·일 전쟁, 1904~5년 러·일 전쟁에 이어 해방 이전 미국을 상대로 벌인 태평양 전쟁 시기까지 옥도를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한 점을 살피면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이 국내 섬 지역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역사적 해석은 옥도가 다도해 섬 지역 가운데서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02

여산송씨 종가댁



섬 지역에서 특정 성씨가 집성촌(集姓村)을 이루어 마을을 형성해온 점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옥도를 대표하는 성씨는 여산송씨예요. 그런데 매우 특별한 건 작은섬에서는 드물게 안채와 사랑채, 제각 등으로 구성된 여산송씨 종가댁이 그 모습을 지켜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안채와 사랑채는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개·보수가 진행됐지만, 구조 형식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품질과 기능을 감안하여 새로운 건축자재를 활용한 주택 개량 및 리모델링 사업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훼손을 최소화하여 후손들에게 종가 문화를 전승하고자 하는 선인들의 뜻을 엿볼 수 있어요.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TRAVEL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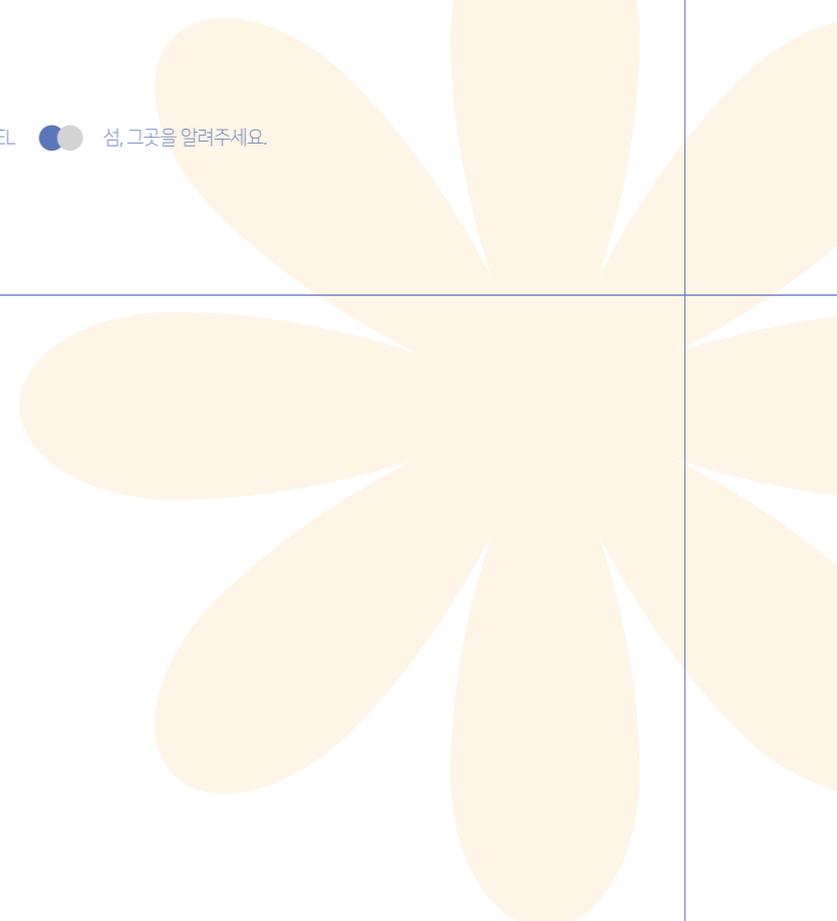
고래목



섬 북동쪽에 자리한 고래목은 갈머리산과 망마산 사이에 조성된 돌담으로, 길이가 약 40미터, 높이 약 1미터 정도예요. 고래가 뛰어넘던 자리라고 해서 고래목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데, 얼마나 큰 고래였을지 상상이 안돼요. 2012년에는 신석기 시대 조개더미가 발견되어 인류사적 가치도 보유하게 되었어요. 고래목 주변에 조성된 돌우실은 겨울에서 봄 사이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하누바람(찬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토가 적어 곡물이 귀했던 섬에서 농토를 보호하려고 돌담을 쌓거나 나무로 숲을 이루는 우실을 조성한 사례는 섬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옥도 갯벌에서 발견된 개는 갯벌 사이에 난 골짜기로, '갯골'로도 불리는 지형이에요. 섬-갯벌 지형이 나타나는 형태나 특성을 기준으로 이름 붙여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갈머리개', '상낭개', '주렴개', '홍어부리개', '집앞개', '찍개', '송장개', '솔개', '간탁개', '구렁개'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04

옥도 빨담어로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어로문화가 발달해온 다도해 섬 지역과 달리 옥도에서는 갯벌이 발달한 동·서·남쪽을 중심으로 *빨담어로 문화가 활발히 이뤄져 왔어요. 옥도 갯벌은 드넓고 평평한 갯벌 중간에 작은 바닷물길인 '개'가 여러 갈래로 뻗어있는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찍이 선인들은 이 개를 통해 물고기나 갯벌 생물들이 먹이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비가 2~3미터 내외인 '개'를 중심으로 솔가지, 수수대, 발, 갯벌 등을 섞어 1미터 정도의 담을 쌓은 후 담을 기준으로 좌우에 높이 30센티미터, 길이 10여 미터 정도로 갯벌을 쌓아올려 빨담을 만들어요. 여기서 빨담어로는 옥도 주민들은 물때에 맞추어 서로 협동하며 과정을 통해 바닷고기를 잡았다고.

*과거에는 주민 개개인이 개를 소유할 만큼 많았어요. 이러한 어로 형태는 지역에 따라서 '개막이'나 '개막이', '빨막이' 등으로 불렸어요.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TRAVEL

01



옥도교회

대촌마을 동쪽에 옥도교회가 있다. 1955년 창립하여 내년이면 70주년에 이르는 역사가 깊은 곳이다. 교회는 과거 옥도 주민들에게 민간신앙이었던 당제를 비롯하여 공동체 문화에 속한 두레, 계 등의 역할을 대신해오고 있다.

02

옥도치안센터



옥도치안센터에 1967년 회의기록으로 이루어 봤을 때 통해 60년대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치안센터 건물은 옛 보건진료소로 사용된 곳으로, 2010년부터 새로이 탈바꿈 했다. 2010년에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03



옥도보건진료소

옥도보건진료소는 1982년 큰물(대촌마을)에 건립되었는데, 2010년 신축 공사가 이뤄지면서 오늘날 자리로 이전하였다.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진료 시간이 서로 다르며, 이곳을 찾는 주민은 목욕시설과 더불어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각종 의료 및 운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04

옥도마을회관

옥도마을회관은 지난 2000년대 초 무렵 건립된 이후 경로당의 기능도 겸하는 대표적인 섬마을 공동시설이다. 여느 섬·어촌지역의 마을회관이 단층인 점과 다르게 2층 구조로 조성된 특징이 있다. 아울러 외벽은 최근 옥도 섬마을을 중심으로 주거시설 정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연자주빛 페인트로 칠해져 새롭게 단장했다.



05



구 옥도분교

옥도분교는 1952년 큰물 해안에 지어져 제1회부터 제38회까지 총 500여 명에 이르는 졸업생을 배출했다. 1998년 마지막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 폐교되었는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옥도 섬 교육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사립학교였던 '신명학원'이 운영된 역사적 사례가 그것이다. 일찍이 일본으로 건너갔던 옥도 출신 주민들이 십시일반 기금과 물품을 모아 섬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섬, 경험을 공유해요.

SPECIAL

내가 꿈꾸는 옥도

장상기 (취)지역다운레이블 대표

2021년 12월 「가고싶은 섬 자원도 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함

핵심 주제

- 섬 자원 :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
- 옥도의 매력 : 폐교와 폐건물, 섬 역사 이야기
- 발전 방향 : 생활 안정화, 섬 원형 보존, 능동적으로 즐기기

자원 현황

- 볼거리 : 갯벌, 사당, 기상업무발상지, 일본해군기지터
- 즐길거리 : 목욕탕·우물, 갯벌, 당숲, 독살과 개막이, 화낙지잡이
- 발전 방향 : 옥도낙지, 물고구마, 게무침·게젓, 지주식 김

옥도의 매력

- 바다가 보이는 예쁜 폐교 : 바다가 흰히 보이는 운동장에 심어진 이국적인 여자수와 학교가 품은 다양한 이야기. 긴 시간이 흘렀지만, 상태가 양호한 학교 건물
- 신비로운 폐건물과 폐가 :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양호한 상태의 폐건물과 폐가를 중심으로 오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 다양한 형태로 걷기 좋은 섬길 : 2, 3시간에 걸쳐 걷기 좋은 자연 그대로의 길과 갯벌·간척지 위에 난 길, 신비로운 산길, 역사를 찾아가는 길
- 누적되어가는 역사 이야기 : 화려하지 않지만, 섬 곳곳에 남아있는 원형의 역사. 여행자 스스로가 큐레이터가 되어 지난 흔적을 더듬는 섬 여행, 그리고 바닷바람에 실린 향기 속에서 그 역사를 상상하는 여행



발전 방향

- 생활 안정화
무리한 관광 비즈니스 창출을 지양하는 대신 안정된 주민 생활에 우선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
- 섬 원형 보존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보존된 섬 공간을 통해 있는 그대로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점이 중요
- 능동적으로 즐기기
핵심 스팟(Spot)을 선정하여 여행자가 능동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점이 중요

컨셉트

- 컨셉트 A. 옥도-트레저-트레일(Treasure-trail)
'팔구포'로 불리던 옥도 섬에 남은 오랜 건물에서 바라보는 자연과 함께 여기저기 흩어진 역사 속 흔적들을 보물찾기 하듯 8개의 길을 따라 걸어보기. 섬 양쪽에 있는 워킹스테이션에서 섬 주민 이야기를 듣고 특별한 기념품과 간단한 점심 즐기기
- 컨셉트 B. 섬섬옥도
가녀리고 옥처럼 아름다운 섬을 일러 섬섬옥수라는 단어처럼, 옥도는 오랜 역사 이야기와 원형을 간직해온 섬. 이 옥도 곳곳에 난 섬길을 통해 스스로 돌아보기



NEWS&ISSUE

01 여수대항간도 순천·곡성 선진사례견학

2023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여수 대항간도에서는 연차별 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섬 가꾸기를 목표로 선진사례견학을 다녀왔어요. 먼저 법인·시설 관리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소득사업 활성화 등을 목표로 순천 개령마을을 방문, 마을 대표님이 진행하는 강의를 시작으로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대항간도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는 폐교 활용을 위해 곡성의 목화마을을 찾아 폐교 리모델링을 통한 유휴시설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사례견학을 통해 주민들이 하나로 뭉쳐 섬 가꾸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03 가고 싶은 섬 신안 우이도 현장점검

신안 우이도는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2019년을 기점으로 섬 가꾸기 사업이 5년차에 접어들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곳이에요. 이를 점검하기 위해 신안군 암태면 남강에서 배를 타고 우이도에 도착, 신안 우이도 사업 대상지 현장점검과 주민대표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1구에서는 법인 대표님과 함께 간장 복원시설과 띠밭너머 해변, 백서향 식재하우스 등 섬마을 역사문화 명소를 찾아 살피고, 향후 시설 활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음으로 2구로 이동하여 마을 이장님과 동행, 성촌·돈목마을에 분포하는 모래사구를 둘러보아 우이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 가고 싶은 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02 국토외곽 먼 섬 지원특별법 국회 공청회

지난 11월 7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외곽 먼 섬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국회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최조순 한국국선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이 섬 주민의 인구·이동권·공공서비스 제공 현황과 향후 지원 방향에 관한 발표로 공청회를 시작했어요. 다음으로 울릉도·독도 지역이 의료·교육·산업·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소외된 점을 지적하고, 지역성에 내재된 가치를 드높이는 차원에서 특별법 통과와 당위성에 대해 김운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대장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울릉도와 독도 등 먼 섬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0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3 해양시민포럼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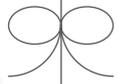
11월 2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자리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2023 해양시민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와 더불어 섬·해양 전문 연구자, 그리고 섬·어촌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오는 청년 활동가 등이 참석했어요. 섬과 해양 공간을 아우르는 해양에 대해 이를 활용하고 보존해나가는 주요 개념으로 '해양시민'을 설정, 역사·문화·환경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어떤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토론이 진행됐어요. 전남 섬발전지원센터에서도 참석하여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소개하고, 그간 추진된 전라남도 섬 정책과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고민 지점에 관해서도 참석자들과 생각을 나누었어요.

05 섬코디네이터창원·부산 선진사례견학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에서는 가고 싶은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심화 단계에 걸친 교육과정을 통해 섬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선발된 섬코디네이터는 현재 전라남도 곳곳에서 섬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지역 홍보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같은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견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섬마을 특산물 판매나 마을경관조성 사례교육 등을 통한 역량강화를 목표로 경남·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현장견학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경남 창원시에서는 '마을공동체와 리더의 역할', '음식문화와 음식 역사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강의로 일정이 시작됐어요. 부산에서는 마을경관조성과 해설 실습 관련 프로그램, 수산물 포장 및 특산물 개발 및 홍보방안에 관한 강의로 이뤄졌어요. 이번 선진사례견학을 통해 마을주민들과 섬 여행객들에게 전남 섬코디네이터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주시길 기대합니다.



사진에 담긴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Photo Story

옥도 섬 풍경 ① 섬에서 만난 식물과 꽃

빈집은 늘어나지만 식물을 키워 작품으로 거듭난다



정원 산책길을 따르면
풍경이 보인다



옥도는 작약 정원으로
꽃단장하는 중



섬집 뒤뜰에서 만난 꽃에게
인사를 건넸다



섬마을 외벽에서 만난
보랏빛 친구, 반가워

사진에 담긴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Photo Story

- 참고문헌**
- 1) 신안군. 『마을由來誌』, 신안군마을유래지편찬위원회, 1988. 474쪽~478쪽.
 - 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문화조사보고서-옥도』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
 - 3)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TF. 『섬 당제의 흔적을 찾아서』, 2020.
 - 4) 전라남도 섬해양정책과. 『가고 싶은 섬 자원도 조사 보고서-여수 연도-신안 옥도』, 2022.

논과 밭은 땅 위에서
숨쉬는 생명 모두를 살렸다



잘 익은 호박 하나 보며
시간을 불리다



맑은 물이 많이 나는 옥도
농사가 잘 되는 이유



땅심(地力)을 키워내던
소똥. 오랜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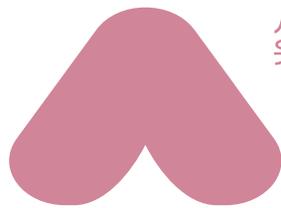


옥도 섬 풍경 ② 문전옥답(門前沃畝). 섬을 먹여 살리다

- 도움주신 분들**
- 1) 옥도출장소 송승학 소장
 - 2) 옥도출장소 장미숙 주무관
 - 3) 옥도 송주현 이장
 - 4) 옥도 송성태 주민

엄니가 담근 생김치에
밥 한 공기. 그리운 점심참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

2023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